

국토부는 건설 관련 예산 신속집행 등 건설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.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2.28) >

◆ 단 두달새 ... 건설사 100개가 망했다

□ 해당 기사에서 표현된 “올해 폐업 30% 늘어 103곳”은 폐업 업체 수가 아닌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*로 실제 폐업 건설사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*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 하거나, 업종전환 등록(종합→전문업종) 등을 포함한 수치
⇒ 올해 폐업 건설사 수 : 84개

※ 1·2월 신규 등록 건설사 수는 소폭 증가('24년 51개 → '25년 54개)

□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건설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공사비 상승, 미분양 증가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*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'지역 건설경기 보완('25.2)', '건설산업 활력제고('24.12)', '공사비 안정화('24.10)' 등

○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미분양 매입과 기업구조조정(CR) 리츠 출시, 공사비 현실화·안정화 등 후속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, 사회간접자본(SOC) 예산을 상반기 내 신속집행(70%, 12.5조원)하는 등 건설경기가 조기에 회복*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* '건설수주(선행지수)'가 '23년 하락 후 '24년 증가세, 한은·KDI도 '25년下 회복세 예측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책임자	과 장	이익진	(044-201-3504)
	건설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황성필	(044-201-4597)